

도서관인의
窓 (2)

여! 휴가철이다. 하지만 우리가족은...

글 : 최지혜 *



매년 이만 때만 되면 휴가는 어디로 갈까? 어디 좀 한적한 곳에서 우리가족만 오붓하게 지내다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다. 게다가 외국을 나가는 일도 그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주지 않았다.

올해도 어김없이 휴가철이 왔다. 남편은 휴가를 시어른들과 함께 강원도 쪽에서 좀 쉬다가 오자고 제의를 했다. 하지만 큰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둘째는 어딜 가는 것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아이, 나 또한 휴가날짜를 남편과 맞출 수가 없었다. 왜냐면 외국처럼 한 달 정도 휴가가 주어지면 그 중 일주일정도 서로 맞추어서 어딜 다녀오면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휴가는 대부분 주말을 합쳐서 일주일정도이니 맞벌이 부부들이 맞추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이 사실에 남편은 입술이 더 두툼해졌고(내 남편은 유달리 입술이 도톰하니 매력적이다(?) 날 씨도 더운데 불만만 늘어놓았다.

드디어 방학은 왔고, 아이들은 독서실을 갈까, 이 무더운 여름을 어디서 지낼까 고민 중이었다.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보충수업이 있어서 방학이 한 일주일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내 아이들은 모두 보충수업을 원하지 않았다. 나 또한 강요하지 않았다. 막상 방학이 되니 에어컨 없는 집에서 방학을 보낼 생각을 하니 나도, 나의 아이들도 한마디로 서로 고역이었다. 보충수업을 시킬 것을 그랬나 싶어 후회가 되었다. 그때 나에게 묘책이 하나 생각났다.

나는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권유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집에서 제일 가까운 시립도서관(그래도 어른 걸음으로 걸어서 20분은 족히 소요된다.)을 답사했다. 다행히 열람실은 이른 7시부터 늦은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완전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되어 있고, 좀 깨끗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서관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가고자하는 것이 아니어서 웬만한 각오가 아니고서는 쉽게 가지지 않을 것 같았다.

* 책놀이문화를 가꾸는사람, aiaime@hanmail.net

두 번째로 나는 인근 다른 시립도서관을 권했다. 우리 집에서는 차를 타고 가야한다. 차로 10분 정도의 거리다. 하지만 도서관에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갔더니 무척 마음에 들어 하고 기꺼이 다니겠단다. 그래서 방학 다음날부터 나는 아이들을 승용차로 도서관에 데려다 주었다. 큰아이는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평소에 읽고 싶은 영자신문도 다양하게 마음껏 볼 수 있다고 아주 만족해했다. 하지만 둘째는 몹시도 따분해 했다. 그래도 누나랑 곧잘 다녔다. 아마도 도서관이 시원하고, 쾌적하고, 맛있는 점심을 사먹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서관에 가는 것 같았다.

그즈음 남편의 여름휴가가 시작 되었다. 나는 흑시나 하고 좋은 제안이 있다고 운을 띄웠다. 아이들이랑 시원하고 쾌적한 도서관에서 휴가를 보내면 어떻겠냐고. 그 제안은 내 남편에게 너무나 멋진 제안이었다. 그는 흔쾌히 수락했고, 어제부터(휴가 첫날) 아이들이랑 도서관 나들이를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서 내 남편은 “와! 우리나라 도서관 정말 멋지던데. 외국도서관 보다 더 멋지고 좋은데.” 하면서 아주 만족해했다. 내 남편은 도서관에서 보고 싶은 책도 읽고, 신문, 미디어, 게다가 안락한 쇼파에서 독서를 즐겨서 정말 신난다고 했다.

사실 우리나라 중장년층 남자들은 독서실이나 고시원 문화는 그래도 좀 알고 경험했지만 도서관문화는 거의 경험이 없다. 일부 집이 도서관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시절 연애하러 친구 따라 한두 번 가보는 곳이 도서관이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40대나 50대,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도서관이란 생소한 곳이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나라는 도서관이 특히 어린이도서관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도서관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웰빙과 주 5일제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

의 놀이 문화도 많이 달라져야한다. 휴가철이라고 무조건 어딘가 놀러 가야하고, 외국을 나가 유명 유적을 답사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바쁜 업무에서 벗어나 진정 휴가다운 휴가를 즐기고 재충전의 기회로 휴가를 보내야할 것이다.

이에 나는 우리 가족이 선택한 쾌적한 도서관에서의 정신적 휴가를 권한다. 참고로 도서관내의 식당은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맛과 영양면에서 가격에 비하면 좋은 편이라 식사까지 해결되는 도서관에서 웰빙을 즐기길 권유한다.

오늘은 일요일,

우리 가족은 신나게 도서관으로 향한다. 

☆☆☆☆☆☆☆☆☆☆☆☆☆☆☆☆☆☆☆☆☆☆☆☆☆☆☆☆☆☆☆☆

♣ 휴가 때 읽기를 권하고 싶은,
‘도서관’에 관계된 그림책 ♣

- 도서관/데이비드 스몰 그림, 사라 스투어트 글, 지혜연 옮김/시공주니어
-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게리 헐 글, 말리 모아 그림, 윤태영 옮김/새터
- 행복한 청소부/ 모니카 페트 글, 안토니 보라텐스키 그림, 김경연 옮김/풀빛
- 샤를마뉴 대왕의 위대한 보물/나디아 웨트리 글, 드보라 클라인 그림, 이경혜 옮김/문학과 지성사

☆☆☆☆☆☆☆☆☆☆☆☆☆☆☆☆☆☆☆☆☆☆☆☆☆☆☆☆☆☆☆☆